한국광고주협회 반론보도닷컴 통해 사이비언론 적극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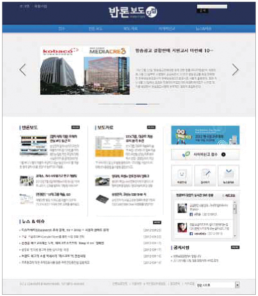
한국광고주협회가 사이비 인터넷 언론의 횡포에 맞서 반론과 해명을 적극적으로 게재할 수 있는 '반론보도닷컴(www.banronbodo.com)'을 개설한다. 사이비언론이라 함은 음해성 기사, 악의적 보도를 일삼고, 이를 빌미로 광고나 협찬을 요구하거나, 과거 기사를 반복적으로 들춰내 홍보담당자를 협박하고, 기업을 괴롭히는 행위를 일삼는 매체를 일컫는다. 협회는 반론보도닷컴을 통해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집중 수집하고 사이비언론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사이비언론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2010년 전경련이 회원사 427개사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46%가 사이비 인터넷 언론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최근 들어 인터넷언론사가 난립하면서 사이비언론의 비윤리적 행위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한국광고주협회는 반론보도닷컴 개설을 올해의 중점사업으로 결정하고 사전 준비와 사이트 구축을 단계적으로 진행, 지난 9월 10일부터 회원사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했다. 오는 10월 18일 개최될 '2012 한국광고주대회'를 기점으로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카페 블로그 운영 노출 확대 및 포털과의 협조 체계 구축

반론보도닷컴은 인터넷 공간에서 사이비언론의 음해성 보도에 즉각 대응하고, 기업의 피해 신고 체계를 정교화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이다. 뉴스기사가 포털, SNS 등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확산되는 시대에 최소 20여 일이 소요되는 언론중재위원회 구제 절차나 해를 넘겨 진행되는 민형사상의 법적 소송 등 기존 절차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사이비언론 행위에 대해 반론보도닷컴을 통한 즉각 대응과 함께, 필요 여부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와 소송 등의 절차를 선택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론보도닷컴의 노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카페(http://cafe.naver.com/banronbodo)와 블로그(http://blog.naver.com/banronbodo)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검색시 악성보도와 함께 기업의 반론이 동시에 노출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네이버, 다음 등 양대 포털과의 협력을 통해 악의적인 음해성 기사가 포털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반론보도닷컴을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를 전달해 포털이 제휴 언론사 평가의 중요한 잣대로 활용해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관건이기에 협회는 사이비언론 행위에 대한 전화 녹취나 영상 자료 등을 취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향후 반론보도 요청이 많은 언론사와 신고 접수된 사이비매체의 순위를 발표하는 등 반론보도닷컴이 사이비언론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 장치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이비언론 지속적 견제 장치로 활용

한국광고주협회는 회원사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까지, 사이비언론에 피해를 입거나 반론보도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 반론보도닷컴을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영세업자나 중소기업은 홍보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고 경험이 풍부한 대기업보다 그만큼 사이비언론 대응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협회는 여러 상황과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를 비롯, 각 업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기업에게는 사이비언론의 피해를 보지 않을 권리가 있다. 사이비언론은 광고 시장을 교란하고, 기업과 소비자, 그리고 건전한 언론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 건전한 언론문화 정착을 위해 포털사는 물론 정부와 관련 단체, 기관 등의 전방위적인 협조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협회는 이런 취지를 담은 '2012 광고주 선언'을 10월 18일 '2012 한국광고주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반론보도닷컴을 통해 사이비언론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KAA 이수지 기자 susie@kaa.or.kr